

## DX KOREA가 KADEX에게 보내는 10가지 공개질의

최근 KADEX(육군발전협회)측은 근거없는 일방적 · 자의적 의견으로 DX KOREA를 폄훼하는 공개적 비방을 했고, 해당 내용을 모든 언론사에 문서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DX KOREA측이 공식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적인 질의를 드리니, 이또한 신속한 공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군과 군인들은 0.1%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하는게 기본임을 잘 알고계실 겁니다. 비상활주로는 말 그대로 비상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KADEX기간중 군 수송기가 긴급하게 비상활주로에 착륙할 상황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태풍이나 폭우 등 기상악조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나요?
2. 현재, 비상활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KADEX는 스스로 공개한바 있습니다. 아직 전시공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의 참가신청을 받고, 비용을 입금받는게 정상적일까요? 지난해 국방부 후원명칭 승인 신청시 장소를 공란으로 했고 또 이후 계룡대로 변경되었는데, 국방부에 후원명칭 승인을 추가로 요청하셨나요?
3. 군 비상활주로를 이용, 전시주관사인 메세이상은 수익을 얻게 되고, 비영리법인 육군발전협회 또한 기부금형태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적시설인 비상활주로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것을 국고환수가 아닌 민간기업이 챙기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전시회 공간으로 결정하기 이전, 방산기업들에게 한번이라도 공개적 의견을 수렴하셨는지요? 실제 의견을 물어보셨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방산기업보다 먼저 언론인들에게 공식 설명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5. 국제방산전시회는 방산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입니다. 지금도 방산전시회가 육군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하고,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이나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외 유명 방산전시회 중 지역축제 또는 별개 행사와 병행하는 곳은 없음)

6. '2024 INLEX KOREA' 전시회가 6월 중순 대전시와 육군교육사령부 주최로 대전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여기에도 육군본부와 교육사령부 등 많은 육군장교와 간부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산제품 전시와 다양한 세미나 등 상당부분 중복될 수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KADEX 2024'는 카자흐스탄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방산전시회 명칭으로 이미 2010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월말경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전시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외교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똑같은 이름의 전시회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혹시 KADEX 2024 이름 변경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8. 육군협회가 4월 후반부 제공한 보도자료에서 '해외국가들에게 이미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해외국가 무관 또는 해외에서 임무수행중인 우리 무관 등 일부 인원에게 문의했으나 KADEX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외 50여국가에 초청장을 발송했다는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인가요 과장인가요?
9. 비상활주로에 천막 등 시설을 설치하기위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투입되고, 일반인의 전시회장 출입을 제한하기위해 펜스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투입되었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인데, 이런 비용이 너무 아까워보입니다. 킨텍스를 활용하고, 차라리 그 비용만큼 육군장병을 위해 기부하는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10.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육군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시군문화축제의 준비과정에 뒤늦게 불쑥 끼어들겠다고 결정한 것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앞으로 국제방산전시회를 영구히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봤는데요. 킨텍스로는 절대 돌아올 계획이 없으신가요? (끝)

2024.5.7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DX KOREA) 조직위원회

〈비상활주로 전경〉



〈골프장쪽에서 바라본 비상 활주로 전경〉

